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6년 7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제약협회, '윤리경영 평가' 자율점검 탈피 의무화 추진
- 강원랜드, 윤리경영 강화 클러스터 구축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부산 총회 본회의, 22~24일 개최
- 산업인력공단, '청렴추진기획단 회의'
- 한국석유관리원, 실무자 50여명 대상 청렴문화 체험교육 진행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LG 유플러스가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법

3. 청렴 위반 사례

- 지인을 부당하게 학교직원으로 채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4. 지식마당

-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제약협회, '윤리경영 평가' 자율 점검 탈피 의무화 추진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현행 자율점검 지표를 확대, 외부기관 평가를 통한 시스템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윤리경영 인증'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최근 자율점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200여 곳의 제약사에게 배포하며 윤리경영 기반을 쌓고 있으나 제약기업 스스로 CP를 평가하는 '자율점검지표'는 구축력이 없어 윤리경영 정착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제약기업들이 CP전담부서를 늘리고 있고,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를 만들었으나 불법 리베이트는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협회측은 이사장단사를 비롯한 협회 내 자율준수위원회 기업 등 20여 곳의 자율점검지표를 토대로 한 점검 결과를 외부기관에 평가를 통해 올해까지 의무 제출키로 했다. 협회는 이 같은 윤리경영 점검 시스템을 제약협회 이사사(약 50곳)로 확대해 2018년부터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율점검지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운영현황 및 방식, 운영실적, 내부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 등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180개의 지표에 900점 만점으로 점수에 따라 AAA 등급부터 D등급으로 구분된다.

공정경쟁규약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 외부 기관 평가와 의무화 도입이 제약산업 공정경쟁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http://www.dailypharm.com/News/213512>

2. 강원랜드, 윤리경영 강화 클러스터 구축

23일, 강원랜드와 마사회, GKL,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4개 사행사업 공공기관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4개 사행사업 공공기관의 청렴정책 관계자 10여 명이 모여 반부패윤리경영을 위한 청렴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4개 공공기관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 3.0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반부패청렴 네트워크를 통해 청렴문화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마련했으며, 반부패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2016년도 반부패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향후 청렴클러스터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패 대응체계 구축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청렴클러스터 회의를 정례화하고 청렴문화 형성에 4개 기관이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번 청렴클러스터 구축을 계기로 참여기관들 내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4개 기관이 협력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3_0014171700&cID=10805&pID=10800

최근 동향 및 소식

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부산 총회 본회의, 22~24일 개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부산 총회 본회의가 22일부터 24일까지 신제운 FATF 의장 주재로 서울 간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이행평가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로 구성해 필요 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테러자금조달금지 및 실소유주 관련 이슈, 이란 및 북한에 대한 현행 제재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이란의 경우 이란의 FATF 국제기준 이행 관련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대해서 각국이 FATF 국제기준과 관련 UN 안보리 결의안을 실효성있게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파나마 페이퍼를 계기로 부패방지 및 국제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고, 특히 실소유자 확인 제도와 관련한 국제 기준 이행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62202109958759001

4. 산업인력공단, '청렴추진기획단 회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조합은 28일 울산시 중구 공단 본사에서 최성식 상임감사와 손종배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공단 감사와 노조는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의 체질과 문화를 바꾸는 창조적 청렴활동인 '적극적



청렴'을 실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성식 감사와 손종배 노조위원장은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청렴도 수준에 이르기까지 감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공단의 체질을 바꿔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사가 지속적으로 협업한 결과 지난해 감사원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14677>

5. 한국석유관리원, 실무자 50여명 대상 청렴문화 체험교육 진행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3일부터 1박2일간 전남 장성에 위치한 청렴문화센터에서 실무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청렴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원의 윤리 경영 체계, 임직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관한 '청렴골든벨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김중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관리자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선현들의 청백리 정신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84431>

윤리경영 실천 사례

LG 유플러스가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법

LG유플러스가 즐거운 나눔으로 우리사회에 사랑을 나누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사랑 플러스’로 행복을 더하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LG유플러스는 정보기술(IT)과 장애인, 청소년 등 세 가지 대상을 타깃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동향은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LG유플러스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글로벌 IT 챌린지라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장애인 IT축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IT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있다.

[잘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

지난 2011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이후 송도, 태국, 부산,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대회를 개최한 LG유플러스는 올해 중국 베이징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작년 대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 장애 청소년 100명과 각국의 IT전문가, 공무원 등 총 260여명이 참가 할 만큼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장애 청소년들의 사회경험을 돕는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저소득 장애가정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는 ‘두드림 유플러스 요술통장’이라는 프로젝트 활동을 실천 중이다.

청소년 가정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LG유플러스 임직원이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고, LG유플러스가 이 금액의 3배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대학 입학금 또는 취업 준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LG유플러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CSR 교육과 나눔활동을 필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IT교육, 장애인 직업훈련, 재활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신입 팀장급 리더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별도로 수행한다.

또한, 기수별로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일일 놀이터를 기획하고 실버 세대에게 스마트폰을 교육하는 등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

[임직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만드는 조직 내 긍정문화]

LG유플러스는 앞서 언급된 활동들을 회사 내 긍정문화 확산으로 잇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조직 내 '올타리'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소통과 나눔에 힘쓰고 있다.

'올타리' 프로젝트는 '우리의 작은 올림이 타인과 소통하는 다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직원들이 작성한 서로에 대한 칭찬 메시지를 한 건당 1천 원으로 적립하여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저소득 청소년에게 보청기를 지원한다.



'올타리' 프로젝트는 직원들간에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서로 전달하는 따뜻한 소통 문화의 확산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사내 인트라넷 포털 '즐거운 직장 U+' 메뉴에서 운영된다.

LG유플러스 측은 동료와의 칭찬, 감사라는 작은 올림이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와 더불어 사내에는 따뜻한 소통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청각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보청기 지원을 통해 소통을 선물할 수 있다고 프로젝트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LG유플러스는 전국 임직원이 참여하여 개인의 물품을 기증하고, 다시 기증된 물품을 필요로 하는 임직원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얻은 수익금을 전하는 '즐거운 나눔 ON+ 나눔 경매, 바자회'도 열었다.

LG유플러스는 나눔 경매와 바자회를 통한 판매 수익금은 중증장애 청소년들이 생활할 고등학교 건립을 위해 전달된다.

판매 수익금은 1997년 경기 광주에 개교해 현재 70여명의 장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지만 고교 과정 위한 시설 등이 부족한 한사랑학교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존 고객과 새로 가입한 고객이 우편청구서 대신 이메일 혹은 모바일 청구서를 신청해 절감된 비용을 매달 1~3명의 심장병, 난치병환자 수술비로 후원하는 '사랑을 전하는 청구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상에 사랑을 나누고 있다.

LG 유플러스 홈페이지

<http://www.uplus.co.kr/cmng/kore/info/pkiu/ConManShare01.hpi?mid=5873>

청렴 위반 사례

1 지인을 부당하게 학교직원으로 채용

초등학교 박모 교장은 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 1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알고 자신이 전 근무지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교사의 자녀에게 모집 공고 전 채용시험에 응시하도록 알려주었음
서류심사 결과 동료교사의 자녀가 10배수 내에 들었으나 순위가 3위에 불과하자 교무부장 등 면접관들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을 부탁하고 경쟁자들에게는 동료교사의 자녀에게 준 점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주어 탈락시킴.

시사점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학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지인에게 공고가 나기 전에 채용계획을 알려주고 면접 시험 시 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음. 이는 행동강령 제6조 위반임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김모 사무관은 세미나 참석, 선진지 견학 등의 명목으로 약 2년 여간 총 12회에 걸쳐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여 출장 여비 545만원을 수령
그러나, 실제로는 한 차례도 출장을 가지 않는 등 출장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하였으며, 이 돈은 식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

시사점 : 공무원은 출장 여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 공무원의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한 것임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식마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Sustainability Report)

1. 개요

지속가능경영은 1992년 UN 리우환경회의에서 'Agenda 21'로 채택되면서 그 개념이 등장하였고, 1997년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창설되어 기업의 표준화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발 및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2003년 최초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확산 노력과 함께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4개에서 2013년 118개로 확대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기업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Sustainability Report)', '사회 책임 보고서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기업시민 기업시민 보고서 (Citizenship Report)', '통합보고서 통합보고서 (Integrated Report)' 등 다양한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지만, 담겨지는 내용은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를 공개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가장 최근의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GRI -G4)에서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기업이 목표를 세우고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써, 이를 통해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모두를 반영하고,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업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와 주주, 이해관계자 및 고객, NGO 등 일반 공공에게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일반적인 목적을 가진 비재무적인 보고서"라고 정의한다.

상장 기업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정기 보고서는 기업의 재무 정보 위주로 작성되기 때문에 기업의 현재 실적과 단기적 재무성과를 예측하는 데는 적합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과 성장성, 즉 '지속 가능성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부족하다.

일례로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환경을 오염시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매출이 급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그 성과를 주주·임직원·소비자·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알림으로써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

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내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활동 및 영향, 지배구조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하나로 정해진 양식이나 내용 규정은 없지만, 기업들은 기업 스스로에게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들을 보고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UN Global Compact Principles, ISO26000 같은 국제기준들은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보의 범위를 넓히거나 더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지식마당

[사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포함 내용 예시

-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기업의 현재 위치 및 정책
- 지속가능경영 어젠다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기업의 혁신 사항
- 에너지, 화석연료, 물, 목재 등 비재무적 자원 소비량
- 쓰레기 및 오염물질, 온실가스, 하수 배출량
-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지역사회 및 NGO 활동 참여
-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신제품 수요, 지속가능경영 어젠다에 수반되는 리스크와 기회
- 인권사항에 대한 기업의 노력
-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
-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정책
- 사회적 이슈 및 반부패 정책

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가이드라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사회책임투자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기초 평가 자료가 되고 기업의 내부 지침으로 확대되어 적용 되는 등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표준화하고 비교가능하게 만드는 비재무적 성과 보고의 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RI 가이드라인, BEST 가이드라인 등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며, ISO 26000 및 UNGC 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표는 아니지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지침으로 활용되는 기준들을 참고할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에 있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보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Korea

Sustainability Factbook 2014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들 중 96%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사용한 모든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GRI -G3, G3.1, G4를 활용하였으며, 77%의 기업이 ISO 26000, 61.9% 기업이 UNGC, 그리고 12.4%가 BEST 지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	개요	기관명
UNGC	기업들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 등에서 10 개의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도록 권고하는 기업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원칙	UN
PRI	기업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제정하여 각국 정부 및 금융기관의 연기금 운용 시 CSR활동에 충실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GRI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기업의 사업성과와 구체적 수치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재토록 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UNEP
ISO 26000	각국간 서로 다른 CSR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기업,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SR: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적 표준 가이드라인	ISO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의 국제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국제적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다국적 기업이 현지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윤 추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의 가이드라인	OECD
BEST	2006년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연구원 이 개발한 국내기업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국내형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BSR, B.E.S.T Sustainability Report Guidelines)'	산업통상자원부 상공회의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5-4호

Quiz

1. 다음 중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를 위반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초등학교 교장이 공개채용을 비공개 특별채용으로 변경한 후 지인을 채용함.
 - ② A도청 김모 과장이 학교 후배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수험준비에 집중하게 함.
 - ③ 공사로 인한 피해액 보상을 위해 세무사 사무소 리스트와 전화번호를 제공함.
 - ④ A과장 등 교육담당 공무원들은 지인과 연관된 B연구원이 주관하는 고액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함.

2. 다음 중 LG유플러스가 집중적으로 후원하는 세 가지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IT
 - ② 청소년
 - ③ 장애인
 - ④ 녹색어머니회

3. 제약협회의 '윤리경영 평가' 자율점검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 ②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 ③ 내부제보 활성화
 - ④ 강제준수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4. 다음 중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의 명칭이 아닌 것은?
 - ① ISO25000
 - ② UNGC
 - ③ BEST
 - ④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③ 신문 등의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하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답 ③ 미래에셋 ME-Day 프로그램은 윤리경영은 윤리경영문화, 윤리경영제도, 고객보호로 분류된다.
3. 답 ② 경조사 축의금 및 부의금을 보낼 때 소속 기관과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4. 답 ④ COBIT 5.0 7가지 동인은 원칙, 정책 및 프레임워크 / 프로세스 / 조직구조 / 문화, 윤리관 및 행동 / 정보 / 서비스,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 인력, 스킬 및 전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행사

1. "반부패 사례 공유하자"... '제35회 윤경SM포럼 워크숍' 개최

윤경SM포럼은 지난 23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 회의실에서 '제35회 윤경SM포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실무자 중심으로, 윤리경영 확산과 정착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한국동서발전 윤리경영팀에서 '청렴실천 내 손으로'라는 주제로 참여형 윤리교육 사례를 소개했으며, 근로복지공단 청렴윤리부는 '청렴 생태계 조성으로 신뢰받는 공단'을 주제로 한 윤리경영 활동을 공유했다. 이어 마지막 발표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CS경영부의 'aT의 더 즐거운 윤리경영' 사례가 공유됐다.

한편, 주관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은 지방소재 공공기관·기업들이 최신 윤리경영 동향을 놓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지방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1347684>

2. 캠프코 현창부 감사, 광주전남본부 방문 '청렴특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현창부 감사가 23일 광주전남지역본부를 방문해 '청렴특강 및 직원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청렴특강'은 현 감사가 지역본부를 방문,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렴도 문제점 진단,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 감사는 청렴특강을 통해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핵심정신"으로서 그 요체는 '염자안염(廉者安廉)·지자이염(智者利廉)의 정신', 즉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고 역설했다.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66694000500187023>

3. 한국수력원자력, 전직원 대상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한수원은 2015년부터 연극, 뮤지컬 등의 윤리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과거 사건을 소재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의 극복과정을 그린 청렴윤리 연극으로 사업소 순회 교육을 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윤리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조석 사장은 "임직원의 청렴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한수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db.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746921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